창구 없는 영업점… 신한은행, AI 혁신금융서비스 속도

은행 일하는 방식에 디지털 접목
AI 역량결집한 AI통합센터 출범
대면 상담수준 금융서비스 제공

지난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디지털영업부에서 열린 개점식에서 디지털개인부문 박우혁 부행장(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디지털그룹 이명구 부행장(뒷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디지털영업부 직원(앞줄) 및 신한은행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모든 업무를 인공지능(AI) 관점에서 다시 설계한다. 이와 함께 1만6000여명의 디지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권 최초의 창구없는 디지털 영업점도 선보였다. 디지털을 기존 영업이나 업무의 지원이 아닌 은행의 일하는 방식 자체에 녹이겠다는 진옥동 행장만의 디지털 혁신이다.

신한은행은 2일 디지털 영업을 통해 영업방식을 혁신할 창구 없는 영업점 디지털영업부와 AI 중심으로 은행의 변화를 이끌 AI통합센터(AI Competency Center·AICC)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영업부와 AICC의 출범은 "가속화된 디지털 중심의 금융산업 변화를 미래 신한은행을 위한 준비의 기회로 삼는다"는 진 행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신한은행은 영업과 업무 방식의 지원 및 보완 목적으로써의 디지털이 아닌 은행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영업부는 금융권 최초의 창구 없는 디지털 영업점이다.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대면 상담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최근 2년 이내 영업점을 방문한 이력이 없는 고객 1만6000여명의 '디지털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영업부의 전담직원이 맞춤형 금융컨설팅을 제공한다.

디지털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신한 쏠(SOL)에 전용 페이지인 '마이 케어(My Care)' 페이지도 신설한다. 이 페이지를 통해 ▲고객별 맞춤 케어 메시지 ▲유용한 금융 콘텐츠 ▲개인별 추천 상품 ▲놓치지 말아야 할 금융 일정 등을 한 눈에 보면서 전담직원과 손쉽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마이 케어' 페이지를 시작으로 디지털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ICC는 신한은행이 보유한 AI 관련 역량을 결집해 은행의 모든 업무를 AI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신설됐다.

연구 개발이 아닌 AI를 실제 현장 업무에 빠르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한다. 강한 실행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보유한 직원을 모집해 기존 10명 수준의 AI 전담조직을 5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 비즈니스 데이터 기반의 사업 과제 발굴과 AI 및 IT 인프라 역량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속도감 있는 AI 혁신 금융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후견인' 제도를 통해 AI 후견인을 맡은 진 행장이 총괄하는 AI 전담 조직을 통해 원신한 관점의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IT 선도 기업 및 핀테크 기업과 협업해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은행 업무 전 영역에서 AI 기반 DT를 수행한다. 관련 노하우를 그룹의 전 계열사에 전파하면 그룹 전체의 AI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설되는 두 개의 디지털 전문 조직을 통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P2P업체 3곳 중 1곳만 적정… 무더기 퇴출

79개사만 감사보고서 제출
회신조차 하지 않은 곳 113곳
영업실적 없음, 제출 곤란 등

〈전수조사 관련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금융위

전체	회신업체(124개사)					미회신업체(113개사)	
	제출(79개사)		영업실적 없음	제출 곤란	제출기한 연장요청	旣폐업	무응답
	적정	한정의견/의견거절					
237개사	78개사	1개사	26개사	12개사	7개사	8개사	105개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등록의 사전단계인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업체가 전체 237개사 중 7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일 'P2P업 1차 전수조사' 결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 업체가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업체 1곳을 포함해 모두 79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P2P 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를 위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P2P업체를 대상으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제출 마감 결과, 237개사 중 124개사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했고, 이중 79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 업체 중 '적정의견'을 제출한 곳은 78곳이었으며, 1곳은 '의견거절'을 제출했다. P2P법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갖춘 곳이 전체 업체의 33% 정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미제출업체는 '영업실적 없음'이 26곳,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 곤란 12곳, 제출기한 연장 요청 7곳이었다.

특히, 회신조차 하지 않은 곳은 113곳이었다. 이중 8곳은 7~8월 중 폐업 신고를 했고, 105곳은 무응답했다.

금융위원회는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곳에 대해 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

'한정·의견거절' 및 '미제출' 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P2P연계 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금융 2000억 규모 선순위 회사채 발행

첫 번째 선순위채권

우리금융지주는 2000억원 규모의 원화 선순위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지주사 출범 후 발행한 첫 번째 선순위채권(만기 3년)이다. 지난 1일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증권신고서 신고금액인 1500억원보다 6배 많은 9100억원의 유효수요가 몰려 이사회 승인금액인 2000억원까지 증액해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발행금리는 최근 금리가 급격한 상승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회사채 AAA(3년) 금리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발행일은 오는 10일이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시기에도, 시장의 높은 관심과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주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행하는 선순위 회사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

12개 기업 성장지원 '청년제일프로젝트'

SC제일銀 경영안정화 자금 등

SC제일은행이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제일프로젝트'에 12개 기업을 최종 선정해 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은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앞서 SC제일은행은 모기업인 SC그룹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사태 해결에 기여하는 청년 소셜벤처를 돕기 위해 참여기업을 모집한 바 있다.

SC제일은행은 응모한 120여 개 기업 중에서 사회적 가치, 지원 타당성, 재무적 가치, 기업가 역량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피치마켓, ㈜공유를위한창조, ㈜딜리버리랩, ㈜만인의꿈, ㈜미더, ㈜방앗간컴퍼니, ㈜브라더스키퍼, ㈜스프링샤인, ㈜오셰르, ㈜투파더, ㈜트레셋, ㈜향기내는사람들 등 12개 지원 대상 기업을 선발했다.

각 기업은 최대 3000만원의 경영 안정화 자금을 제공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판로 개척과 홍보도 지원한다.

최기훈SC제일은행 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장(왼쪽)과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대표상임이사가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 임직원들은 이들 기업에 재무·금융·IT분야의 프로보노(공익을 위한 무료 봉사 봉사활동) 컨설팅을 함께 제공한다.

최기훈 SC제일은행 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사회적 가치를 제일로 추구하고 도전정신으로 똘똘 뭉친 청년 소셜벤처를 뽑았다"며 "청년 기업가들이 그들의 강점인 젊은 에너지와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KB국민銀, IT전문가 구성 '인사이트 패널위'

IT 신기술 접목 고객 중심 서비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고객 및 기술 관점의 인사이트(Insight) 발굴을 위해 IT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KB 인사이트(InsighT) 패널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외 상황을 고려해 랜선미팅(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이우열 KB국민은행 IT그룹 부행장과 MS NTO(최고기술위원) 신용여 박사, AWS 임진식 상무, AI 신약개발지원센터 김화종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KB 인사이트 패널위원회는 제3자의 시각에서 고객중심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굴하는 등 향후 금융 IT의 전망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KB국민은행의 IT특화지점인 'KB 인사이트' 직원과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인공지능(AI), 보안, 교수,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최고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으로 패널위원회에서는 ▲디지털금융 ▲IT인재육성의 공통주제와 ▲AI/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플랫폼 ▲영업점 디지털화 등 4개의 개별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부행장은 "디지털 혁신의 전진기지 격인 'KB 인사이트'는 미래의 영업점 모델과 신기술을 구현하는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러 IT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더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KB국민카드

알뜰폰 전용 카드 출시

KB국민카드는 알뜰폰 통신요금 자동 납부 시 월 최대 1만5000원 할인해주는 알뜰폰 전용 상품 'KB국민 알뜰폰 허브(Hub)' 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알뜰폰 업체별로 제휴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한 장의 카드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등록된 알뜰폰 업체의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알뜰폰 통신요금을 자동 납부하고 전월 이용 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5000원이 할인된다. 자동 납부 신청한 알뜰폰 통신요금이 2건 이상이면 통신요금을 합산해 월 최대 할인 금액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영석 기자